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건 자신을 못 믿기 때문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요

문)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도 부처님을 볼 수 있어 주말 모임에 참석해 법을 듣고 있습니다만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저 『반야심경』 『현수경』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만 2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남은 시간이 배로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나약해서인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던 차에 신문을 접하게 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고 무엇을 시작으로 공부를 해야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그냥 경을 보고 외우며 사경을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다 싶고, 현재의 나이 43세이고 사회에 복귀해 48세인데 그때 나가서 공부하면 늦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마음 내려놓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여쭙고자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답) 여러분이 부처님의 경을 풀이하게 위로 꿰고 알로 꿰고 옆으로 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밋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 문제점을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일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자기가 있는 데, 부처님은 바로 그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내기 이전 본래면목에, 그 실상에게 자기가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까 당신에게 일임합니다.' 하고 놔버리는 그런 자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당신이 형성시켜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하고 놔버리는 것입니다. 부어도 부운 사이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처로 알고 항상 일체를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나간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올던 것도 웃게 되고, 만약에 운다 할지라도 그건 값비싼 눈물이 될 것이고 값비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즐거움도 거기서 아마 샘솟듯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해 놔는데 그것이 영 안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는 테다가 다시 지금 착한 마음으로서 착한 도리의 녹음을 한다면 그 앞서의 문쳐서 녹음했던 것은 바로 없어지고 말죠. 사대 오온이 다 공했으니 자기도 공하고 세상도 공했어요. 그러나 공한 데서 나온 거 공한 데다 다시 놓으면 바로 그것은 테이프에 녹음되었던 것이 다시 없어지듯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한 발짝 한 발짝 녹음했다 없애고 했다 없애고 하는 반복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공한 데서 나온 거 공한 데다 놔버리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에이구, 될 대로 되라. 난 착하게 하는 사람 더 잘사는 사람 못 봤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어.'

한다면 안 됩니다. 착하게 하는 것도 끝이 있고 악하게 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둑질을 길게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는 법, 착한 일을 길게 하다 보면 그것도 역시 꼬리가 밟힙니다. 사람이 꼭 악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일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저지르는 일은 알고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고등 동물이 돼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인간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모르고 저지른 것이 녹음이 지워지면서 새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녹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지금 현재에 회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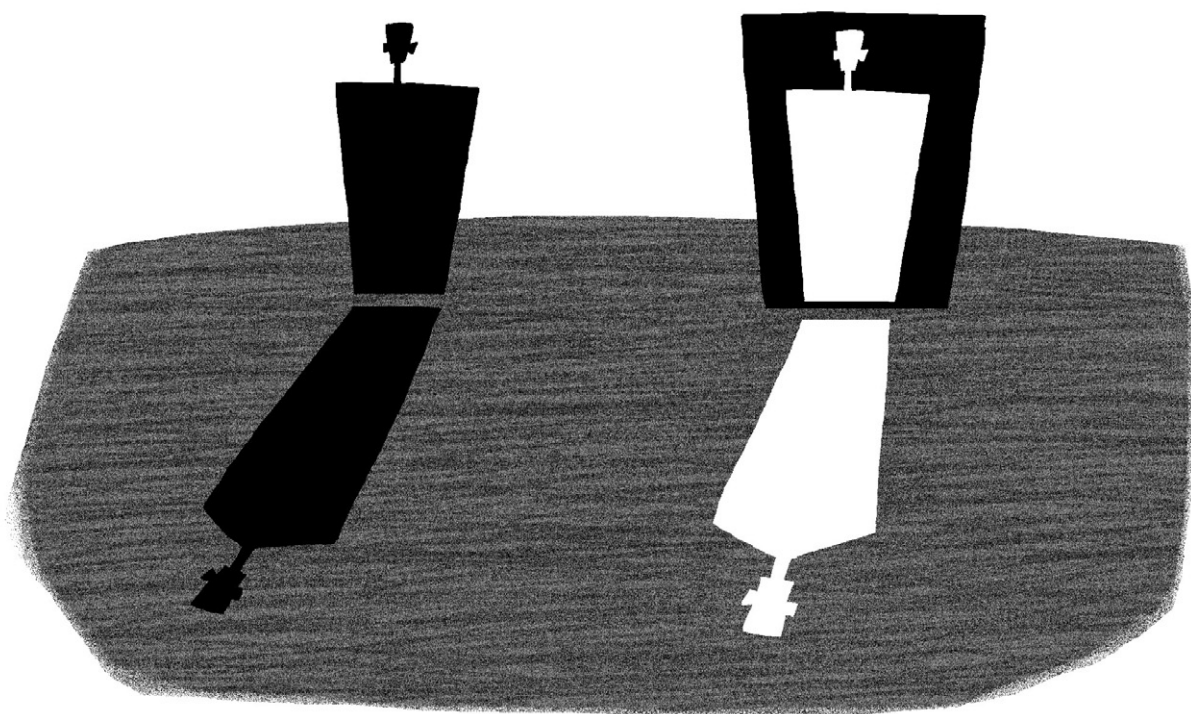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써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바로 그 앞서 거는 없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주인공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저지른 걸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저지른 거라면 다시는 앞으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저지른 거라면 바로 앞으로 저지르지 않겠다 하고 그 녹음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해 놔라 이겁니다.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놔라. 안되는 건 믿고 놓고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르는 거는 몰라서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몰라, 자기가 한 발 한 발 놓는 거를 다, 잘한 것도 감사하게 놔라 이랬는데 하물며 잘 안된 거를 갖다가 놓지 않아서야 되겠

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에서 나오는 대로, 팔자운명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앞서 입력된 걸 죄 없애라 이겁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거기다,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어. 안되는 것도 너만이 되게 할 수 있어. 안되게 하는 것도 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라고 오로지 자기다가 다 일임할 때 바로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입력이 새로이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 좋게 살 수밖에 없죠. 입력이 좋게 들어갔으니까. 전에는 입력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절대로 나쁜 입력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로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주인공에다 무조건 맡기면 입력이 좋은 입력으로 되고, 절대로 자기 자부처가 자기를 못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는 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을 모르는 알든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습니다. 남이 대신 먹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자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아파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똥 뉘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거라도 누가 대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자기가 리드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거기에 맡겨 놔 보고 실험을 해 보세요. 그게 체험이 안되나 되나. '주인공이시여!'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근본이 당신이니까, 주인공이시여, 모든 것을 당신이 형성시켜놔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생각을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생각을 안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일임시켜주세요. 다 놔 버리세요. 놔 버리시고 모든 망상이 드는 것도 바로 그 자기 주처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놔 버리세요.

▶▶▶ 3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재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장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되놓으세요

29면에서 계속

또 모든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전부 주처에서 들이고 내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처를 주인 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이고 꼭 '주인공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시키십시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업이 많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으로 업이니, 팔자운명이나 이런 언 어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도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 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 밖에 없 지.' 하고 놓고 또 모든 게 좋게 되면 '야, 감사 하구나.' 하고 또 놓고 말입니다.

이 도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이 렇게나마 여러분이 안다면 주인공에다가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공 에서 나오는 일들은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 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생각나는 거나 바깥에서 내 몸이 움직여서는 거나 모든 게 나로 인해 서 생긴 거니까, 내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을 다 시 그 자리에 되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강 한 것도 놓고,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 광로에 넣으면 다 녹듯이 그렇게 모든 걸 녹여 나가다 보면 홀연히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 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여러분이 이 날 까지 해 왔지 누가 해 줬습니까. 자기가 있고부 터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이 있는 줄 앎으로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나쁘다 좋 다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알아야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부터 왔다?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고 '참나가 어딴?'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라고 관하십시오. 바깥으로 말로만 그냥 해서 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없이 생각 자체에 깊 속하게, 집착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번속에 가나, 나가나 들 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지, 이해되십 니까. 앞으로도 신문지상어나마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점차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열 심히 해 보세요.

부처님도 신적인 존재가 아닌지요

문)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 불교에서도 부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 까. 그렇다면 그 부처님도 신적인 존재가 아닌 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답)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성신, 즉 주처, 자기 주처가 있기 때

문에, 열린 쉽게 말해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 에 썩어 있는 것이지 그 썩어 난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주시오!' 하고 애를 써 보더라도 에너지가 그리로 안 가요. 자 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올라오죠. 예를 들어 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하하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은 분체만체하고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그냥 뒤집히 겠지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겠고, 별 신의 이름을 다 불러 대고 아담법석들을 하겠지 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은 선장한 데다 맡겨 놓고 이렇게 좌우왕왕하지 않고 한군 데 한마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가는 데까지는 무 난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듯

불성이 있는 까닭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는 까닭에 만법을 들이고 낼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인간 이 그냥 먹고만 살면 그냥 제일인 줄 알지 마세 요. 누가 굶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 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건 자 기에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즉 말하자면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거라 고 생각이 안된다면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나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써 그 모 든 생명들 내 생명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 다. 그리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니다. 자기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기 자성신이 없다면 자기 몸뚱이는 나오지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 혼의 근본이 빠지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된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그 썩 은 그렇게 푸르게 진짜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모두 타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데...

문) 우리가 주인공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주인공을 만나요?

답) 그럼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지금 자기 생명, 마음을 내보 보세 요. 보이지 않고 잠을 수 없는데도 여유롭게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한 것도 잠을 수는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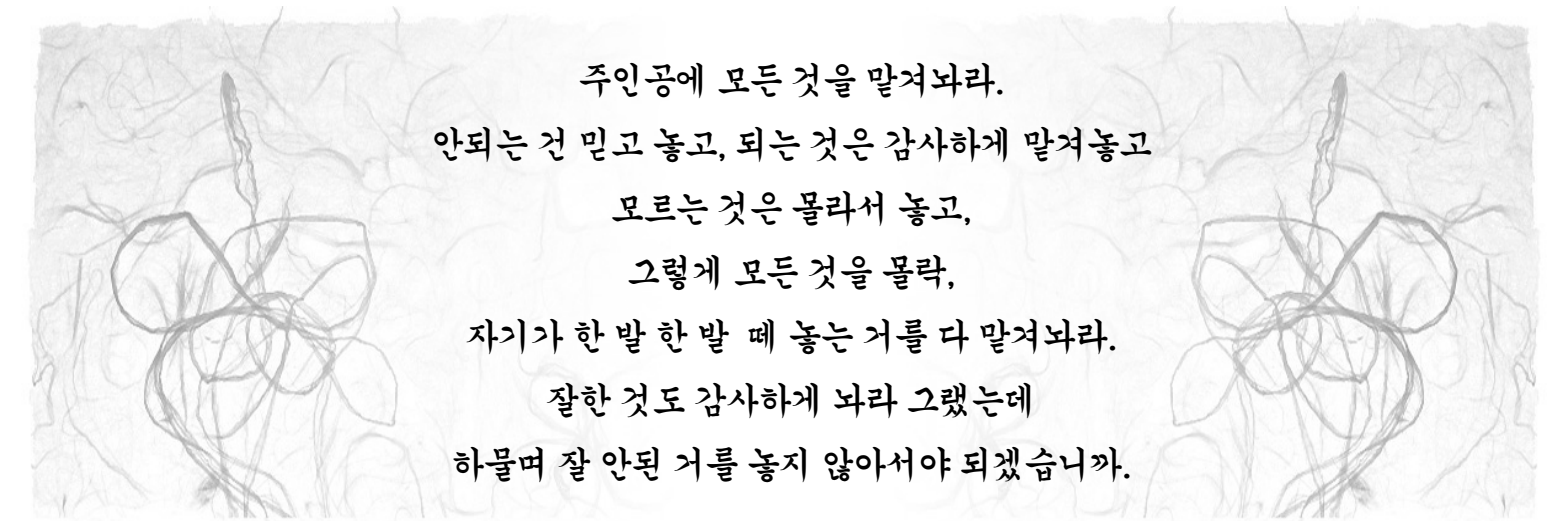
으로써 그 누진은 머리 즉, 레이더망으로 비유 합니다. 그 레이더망이 수많은 그 살림살이를 하는, 마음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보고 듣고 하는 작업을 그대로 여유롭게 함으로써 이 지금 몸속에 있는 모습들, 의식들이, 잠재해 있는 의 식들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준다 이겁니 다. 그러니까 자기 한마음을 갖는 대로 내면세 계에서 따라 주고, 오장 육부의 세포 하나하나 에서 따라 주는 반면, 즉 말하자면 원자가 안의 주인공이라면 입자, 분자 이것이 삼합이 합동을 해서 그 원자의 능력으로서 다 들이고 내는 작 용을 하면서 자기를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 보 세요.

연젠가부터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문) 저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계속 관하고 있는데 연젠가부터 마음속에서 걱정하 지 말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환한 빛이 보 여집니다. 제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요?

답) 그것은 빛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덕에 서 이 깊은 마음속에 자기의, 즉 말하자면 수없는 과거를 형성시켜 오고 진화시켜 온 그 장본 인에게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 지만 그것은 의식 속에서 화해서 들리는 소립니 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죠. 어 떻게 행상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 시고 부처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집착할 게 없죠. 생각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도 맥을 가르치 기 위해서 빛으로 보여 주고 환으로 보여 주고 그렇게 격정마라 이라는 것도 들려왔는데 그것 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일임하고 '감사하구나.' 하고 하지, '야, 내가 이렇게 저거 했으니까 뭐 좀 알려나 보다.' 이렇게 급하게 생 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몸속의 이 모습, 그 의식들이 그런 게 아프게 몸속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내 집 식구가 아닌, 내 집 식구라도 내 집 식구처럼 하 지 않고 딱 식구로 변경이 돼 가지고 나를 압박 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임 을 맡아 가지고, 위의 소임을 맡았던 장의 소임 을 맡았던 대장 소장 척수 척추, 이런 데로 다 맡 아 가지고 있는 소임자들이 어떤 때는 간성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몸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부 다스리는 바로 자기 주인공에다, 모조리 다스리는 그 주인공에다, 자 기 영혼도 다스리고 자기 그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스리고 그러는 자기 '참주인공', 거기다가 다 맡기세요. 거기다 맡기시면요, 그것이 체함이 되고 알아질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아픈 것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내 썩어 내 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만이 썩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하고 관찰 때에 그것이 관하는 대로 대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대뇌에서 사대로 통신 이 된다 말입니다.

이 마음의 빠른 이치란, 통신처라는 건 것보다 도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로 통신 이 되면 즉시 어디로 가느냐. 정수로 올라갑니 다. 정수는 뭘 뜻하느냐.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 은 겁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 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 고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 다. 이거는 심성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과 학이라고도 해도 되고, 심성 전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진리를 참고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갖추어 가지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가 있지요. 예전에 육조 스님은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려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또는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놔라.

안되는 건 믿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놓고

모르는 것은 몰라서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몰락,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 놓는 거를 다 맡겨놔라.

잘한 것도 감사하게 놔라 그랬는데

하물며 잘 안된 거를 놓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미져 도 없이 그냥 여유롭게 돌아가는구나. 조월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지금 참고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 깎지 않았습니 다. 절대로요.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게 된다면, 자 기 뿌리가 자기 불성이라는 거,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면 오직 너만이, 아픈면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면 의사가 돼 줍니다. 또 '너만이 가 있는' 거를 좀더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다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도 돼 줄 수 있고 해결 사도 돼 줄 수 있고, 모든 게 돼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바로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다 조절해 주듯이 그렇게 자기 주인공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공, 내 불성은 다 팽개치고 그 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

니. 데 말은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체 만물은 지 수 화 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 니다. 그래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거기에 대두돼 있다 이겁니다. 누구니까. 그래서 과거에 살던 것이, 수억급 광년을 거쳐서 나오는 그 습 과 인연들이, 모두 자기 산 것대로 차원대로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살림살이, 지금 현실에 사는 데에 천차만 별로 그 입력된 게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상 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심성망원경, 물질적이 아닌 자연적인 그 망원경과 탐지기, 팩스 또는 무선통신기, 이렇게 한 시스템이 돼서 같이 돌 아가는 반면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거기에다가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입력해서 현실 로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맡겨 놓으면, 주인 공에 맡겨 놓으면 입력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죠. 그럼으로써 자유스럽 게 그릇이 비어서 홀연히 자기 주인공이 발견이 된다 이겁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인공을 찾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웁은 불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40×80cm 160g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참회진언 타올	30수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불기 닦는일 입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어서 출진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

금강경이 시집갔다?

깨·달·음
빛가에 돌맹이 하나 둘 셋...
무덤가에 개망초꽃 하나 둘 셋...
과부살이 반평생 울 엄니 한(恨)처럼 날브러져서 흐드러져서 참 헤기가 힘들지만 그보다 흔해빠져 예나 지금이나 없는 곳이 없어 지천에 깔린 깨 달 음 어찌해서 얻는 이도 없고 얻지 못하는 이도 있사옵니까?

’어! 금강경에 이런 게 있냐?’ 의심이 난다면 **땀금 나운 파곤파곤한 시 책을 펼쳐보라.** (작업 5년 만에 시집을 갑니다.)

위 꾀는 금강경 제14본 '이상적멸본' 말미에 '보살 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눈밝은 사람이 햇빛 아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게 만든 수보리의 숨은 질문에 해당한다. (존재여행기 '작은 기적'도 봐주세요.)

도서출판 연화 053)253-1923

**놓아라! 구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

인생공부의 필독서!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
...윤기봉 지음

신국판 | 컬러 | 416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목마르지 않는 자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다

삶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은 한 구도자의 체험기

극도의 우울증으로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던 저자는 치열한 고민과 구도(求道)의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의 허망한 속성을 깨닫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 그 행복을 독자들에게 나누고자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